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kids.co.kr

# 우렁각시

김용철 글 · 그림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http://www.gilbutkid.co.kr)

# 우렁각시

김용철 글 · 그림



길벗어린이



#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옛날 어느 산골에 한 젊은이가 혼자 살고 있었어.

어느 날 밭에 갔다 오는 길에 혼잣말을 했지.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하고 먹고 사나?”

그랬더니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 뭐야.

“나하고 먹고 살지, 누구하고 먹고 살아.”

젊은이가 다시 말했어.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하고 먹고 사나?”

“나하고 먹고 살지, 누구하고 먹고 살아.”

또 소리가 들리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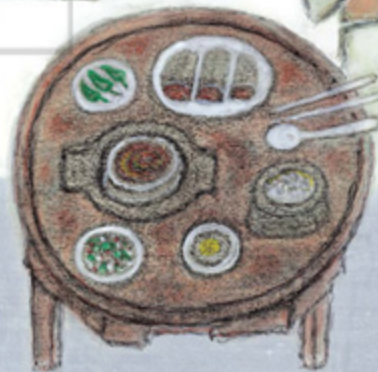
누가 그러나 하고 가 봤더니, 커다란 우렁이가 스르르 다가왔어.  
젊은이는 우렁이를 집에 가져가 물동이에 넣어 두었지.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다음 날 일을 갔다 왔는데, 누군가 하얀 쌀밥을 해서 차려 놨지 뭐야.  
참 희한한 일이다 하고 잘 먹었어. 그 이튿날 일을 갔다 왔는데,  
또 따끈따끈하게 밥을 해서 차려 놔. 배가 고팠으니 잘 먹었지.  
참 희한도 하다, 희한한 일도 다 있다.







# 길벗이랑이

www.gilbutkid.co.kr

그 다음 사흘째는 물래 숨어 지켰어. 그런데 물둥이에서  
털버덩털버덩하더니 예쁜 아가씨가 나타나지 뭐야.  
아가씨가 밥을 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 짙은이가 뛰어나가  
아가씨 허리를 꼭 껴안고 말했지.

“나하고 같이 살아요.”

아가씨가 대답했어.

“이를 밤만 지나면 완전히 사람이 되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짙은이는 할 수 없이 놓아주었어. 아가씨는 우렁이가 되어서  
털버덩털버덩 물둥이에 들어갔지.





#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http://www.gilbutkid.co.kr)



사흘째 되는 날, 정말 우렁이가 사람이 되어서 같이 살게 됐어.  
젊은이는 우렁각시가 하도 예뻐,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었지.  
우렁각시가 자기 얼굴을 그려 주니까, 그제야 일을 하러 나갔어.



젊은이는 우렁각시 그림을 나무에 걸어 놓고서  
 쟁이로 한 번 팍 치고 각시 얼굴 쳐다보고  
 쟁이로 한 번 팍 치고 각시 얼굴 쳐다보고  
 한 번 치고 쳐다보고  
 한 번 치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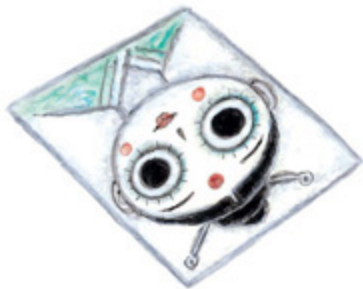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m



그런데 회오리바람이 휩 불어와서  
 각시 얼굴 그림이 날아가 버렸어.





#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http://www.gilbutkid.co.kr)

하필이면 우렁각시 그림이 못된 왕한테 날아갔네.  
왕이 그림을 보고 말했어.  
"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왕은 우렁각시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젊은이를 불러들였어.  
“나와 내기를 하자.”



“단숨에 큰 집을 지어서 오백 사람이 들어가 국수를 먹게 하는 거다.  
네가 이기면 말 한 필과 돈 천 냥을 주고, 내가 이기면 네 색시를  
궁궐로 데려오겠다.”

젊은이가 돌아와 쩡쩡 앓으니 우렁각시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  
“곰짜없이 각시를 빼앗기게 됐어요.” 우렁각시가 가만 들더니 말했어.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나는 용왕의 딸이에요. 내가 있던 웅덩이에 가면 잉어가 나와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데려다 줄 거예요. 용왕이 무엇을 줄까 하시거든,  
복을 달라고 하세요.”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젊은이는 용왕한테 가서 요술복을 얻어 갖고 왔어.  
우렁각시가 말했지.  
“이 복을 세 번 치면 내기에 이길 거예요. 딱 세 번만 치세요.”





드디어 내기가 시작됐어. 왕의 일꾼들이 와글와글 모여서  
똑딱대며 집을 지었지. 짙은이가 실컷 놀다 일어나,



등!

한 번 북을 치니까 집 지을 나무가  
반듯하게 본이 떨어져 나왔어.



등!

또 한 번 치니까 집이 반듯하게 세워졌어.



또 한 번  
등! 치니까





오백 사람이 집 안 가득히 둘러앉아 국수를 먹네.  
왕은 놀라 까무러치고, 짚은이는 신바람이 났지.

하도 좋아서 그만 한 번 더 쳐 버렸네.  
둥! 치니까 없어져 버렸어.  
멀쩡한 집이랑 사람들이 흩라당 없어졌지.  
우렁각시는 왕한테 끌려가면서 말했어.  
"활쏘기 삼 년, 눈치 보기 삼 년, 뛰어넘기 삼 년,  
함해서 구 년을 배우고 날 찾으러 오세요."

길벗어린이

www.gilbutkid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그때부터 젊은이는 다른 일은 안 하고 활만 쏘았지.  
활을 쏘아서 새를 잡고, 새털을 모아서 새털옷을 해 입었어.





그 다음 삼 년은  
이 사람 눈치를 할금할금 보고  
저 사람 눈치를 할금할금 보고,

또 다음 삼 년은  
낮은 데 높은 데 뛰어넘기를 하고 다녔지.  
마침내 우렁각시와 약속한 날이 되었어.  
젊은이는 궁궐로 갔어.





#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젊은이는 궁궐 마당에서 텅실텅실 춤을 추었지.  
우렁각시가 젊은이를 보고 빙그레 웃었어.  
왕이 말했지. "아니, 구 년 동안 한 번도  
웃지 않더니 저 거지가 춤추는 게 그렇게 우스워?  
내가 저걸 입고 춤을 추면 더 좋아하겠네?"  
왕은 당장에 뛰어가 젊은이의  
새털옷을 빼앗아 입었어.





왕이 새털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을 때, 우렁각시가 젊은이한테  
쾅긋쾅긋 눈짓을 했어. 눈치 보기 배워서 무엇 하느냐고,  
젊은이가 열른 왕의 옷을 입었지. 우렁각시가 또 젊은이한테  
쾅긋쾅긋 눈짓을 했어. 뛰어넘기 배워서 무엇 하느냐고.

젊은이는 훌쩍 뛰어넘어 왕이 앉는 의자에 앉아 소리쳤어.

“여봐라! 저기 새털옷을 입은 저지 놈을 끌어내라!”

왕은 꼼짝없이 묶여 끌려갔지.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이렇게 해서 짚은이는 우렁각시를  
다시 찾고 왕 노릇 잘하면서 잘 살았대.



## '우렁각시' 이야기에 대하여

옛날이야기에서 결혼 이야기 하면 '볼리판리'와 '신데렐라'가 떠오릅니다. 볼리와 신데렐라는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남자와 결혼하고 행복해지지요. 신분이 높은 상대와 결혼하는 것은 주인공의 결혼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결혼 상태로 흔히 나오는 인물에 동물도 있습니다. 서양의 개구리 왕자와 고니 이야기, 우리의 곰 신부, 호랑이 신부, 두꺼비 신랑, 구렁이 신랑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신분이 아니고 동물이라는 정체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옛날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동물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 동물들은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지요. 동물 신랑과 동물 신부가 어디서 왔는지 쫓아를 찾아가면 토tem 시대에 이른다 합니다. 지구 북반구의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을 곰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즉민족 땅(산)으로 들어가 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곰은 거기서 자손을 낳고 민성에 사람들을 찾아와 사냥감이 되어 줍니다. 곰 조상이 후손인 사람들이 잘 살아가도록 보살핀다는 것이지요. 민족마다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이 다르듯 토tem 동물이 달라서 곰, 고래, 소, 양, 사슴, 고니, 물고기가 등 여러 가지입니다. 동물 조상이 고대에 부족 국가를 세운 왕을 낳았다는 이야기들이 부족의 시조 신화로도 전해집니다. 동물과 결혼하는 것은 신성한 결혼을 뜻하였고 그 결혼에서 태어난 인물은 특별한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렁각시' 이야기와 비슷하면서 남아 전하는 각편이 더 많은 것

으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평범한 남자가 특별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선녀와 나무꾼'은 세계에 훨씬 널리 퍼져 전하는데, 학자들은 선녀가 새 토tem과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몽골의 '호리 무레르 메르겐' 이야기에서는 고니나 내리와 갯벌을 밟고 아가씨가 되어 사람 남자와 결혼하고, 이 부부가 낳은 열한 명의 아들이 몽골 11개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가운데 우렁각시와 거의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가 일을 하러 가지 않아서 조경화를 그리고 그 초상화가 임금에게 날아가 임금과 내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렁각시와 선녀는 비슷한 성격의 인물 같습니다.

우렁각시는 주로 봉아시아에 전해집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4~5세기에 활동한 중국의 시인 도강이 편찬한 <수산후기>에 실린 것으로 보는데, 육황상제의 영을 받은 우렁이 아가씨가 자담이란 남자를 돕기 위해 내려옵니다. 습지에서 사는 우렁이이니만큼 논농사와 관계가 깊고, 하늘을 신성하게 여기는 관념도 엿볼 수 있어요. 일본에는 조개 색시가 더 흔하다고 해요. 민족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고 특유한 생활 방식을 발달시켜 왔기에 그에 따라 이야기도 달라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지요.

우렁이에서 나온 아가씨를 상상하노라면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옛날이야기에서는 결혼을 이야기할 때 남자가 만나 사랑하는 과정을 그리는 법이 없어요. 그냥 '반려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우렁각시의 초상화를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은 총각이 문제에 빠졌음을 보

여 주는 옛날이야기의 방식이지만, 그저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으로 보아도 재미있습니다. 결혼이 순탄치 않고 갖가지 시험을 거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남녀의 결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끼게 해 줍니다. 총각은 발타기, 나무 심기, 집 짓기 같은 내기를 해서 남자로서 능력을 시험받지요. 아이들에게는 내기 자체가 흥미로울 것입니다. 옛날이야기에는 사람이 나고, 자라고, 죽기까지, 한평생 겪게 되는 중요한 단계들이 그려집니다. 아이들은 물레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인생의 여러 단계를 두루 볼뿐더러, 자기 앞날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와 바람을 품고 살아가지요. 옛날이야기는 쉽고 단순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니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알맞은 대답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책의 글은 작가의 어머니 윤옥와 씨(1936년 강원도 홍천 출생)가 들려준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가 그림책 장면에 맞게 다듬은 것입니다. 자랄 때 들은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아들에게 들려주었으니 구비 전승 자료에 속합니다. 그런데 윤옥와 씨의 이야기는 이제껏 채집된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은 특이한 자료입니다. 우렁각시 이야기에 몇 가지 대표적인 줄거리가 있고, 그 가운데 우렁각시를 빼앗아 간 임금과 내기를 해서 총각이 이기는 유형과, 총각이 새털옷을 입고 우렁각시를 찾아가 임금이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한데 섞여 있는 자료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분은 두 가지를 그럴싸하게 이어서 들려주었습니다. 임금과 내기해서 이기는 유형에서는 총각이 한결같이 우렁각시와 용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윤옥와 씨는 용왕에게서 얻은 보물로 성공하게 하지 않고, 총각이 실수를 한 다음 다시 실력을 갖추어 찾아오게 하였어요. 그렇게 새털옷 유형으로 이어져 남자 주인공이 더욱 도드라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이야기는 말로 전해지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을 벗어난 어떤 변화를 겪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렁각시 이야기라고 할 때는 여러 사람이 구연한 이야기를 공통된 줄거리로 정리한 것을 가리키지요. 실제 이야기 한 편 한 편은 똑같은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살아 움직이는 거라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도 그렇게 태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 참고한 분야에는 이야기

1. 우렁이에서 나온 자식, <한국구전설화 7>, 민서재 역출, 원년시, 1990, 191~194쪽, 1917년 전래 설화문 소장본 무명의 아이에 의해서.
2. 백고강어, <한국구비문학대계 1-40>, 조희용 역출, 한국구비문학연구원, 1984, 430~440쪽. 경기 용인군 함남면 명리 245번지 권순손(여, 84세)에 의해서.
3. 총각과 달팽이 자식, <한국구비문학대계 2-45>, 김신재 역출, 한국구비문학연구원, 1986, 809~873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2리 김금자(여, 50세)에 의해서.
4. 우렁이에서 나온 자식(2), <한국구비문학대계 5-40>, 박순호 역출, 한국구비문학연구원, 1984, 836~839쪽. 전북 무주군 서수면 서수리 하용천 나로곡(여, 43세)에 의해서.
5. 용로 변한 여인과 살다 임금된 총각, <한국구비문학대계 7-155>, 임재희 역출, 한국구비문학연구원, 1988, 502~509쪽. 경북 예천군 호성면 신평로 무로계 왕인애(노, 83세)에 의해서.
6. 우렁이 자식, <한국구비문학대계 8-7>, 정삼익·유종목 역출, 한국구비문학연구원, 1983, 541~545쪽. 경남 양산시 무안면 무안리 김도연(여, 68세)에 의해서.

### ● 참고한 논문

- 김현선, <새털옷 신랑 이야기의 특수와 유형적 변이>, <설화 연구 방법의 통찰성과 다양성>, 보고시, 2009.  
정동성, <한글 나무꾼과 신사 설화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제1호, 국립한글박물관 편, 2001, 12.  
전민경, <우렁이에서 살다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차민재, <한글설화 비교 연구>, 민족학, 1999.





#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김용철은 1960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홍익대학교 서당화과를 졸업하고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듣고 자라 지금도 옛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월월 건디>, <낮에 나온 편지>, <길 아재씨 손 아저씨>, <흰 사슴을 타고 간 여행> 등 많은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길벗어린이 창간 5주년

우렁각시

첫판 1쇄 펴낸날 - 2009년 4월 30일 / 첫판 2쇄 펴낸날 - 2011년 8월 25일 / 지은이 - 김용철 / 펴낸이 - 이호관 / 펴낸곳 - 길벗어린이(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11-2 / 전화 - 031-955-3251 / 팩스 - 031-955-3271

홈페이지 - www.gilbutkid.co.kr / 등록번호 - 제 10-1227호 / 등록일 - 1995년 11월 6일 / ISBN 978-89-5582-174-1 77810

글, 그림 © 김용철, 2009 이 책의 무단 복제와 판매를 금합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

